

054 ☆☆

- 수능완성 2강 3번
- 진보에 대한 이해  
: 해를 최소화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적 과정의 특징을 개별로 나누는 것!

- 출제 예상  
: [ 빈칸 ] / 어휘

To appreciate the long-term benefits of industrialization one does not have to accept its cruelties. One can imagine an alternative history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modern sensibilities applied earlier and the factories operated without children and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the adults. Today there are doubtless factories in the developing world that could offer as many jobs and still turn a profit while treating their workers more humanely. Pressure from trade negotiators and consumer protests has measurably improved working conditions in many places, and it is a natural progression as countries get richer and more integrated into the global community. Progress consists not in accepting every change as part of an indivisible package – as if we had to make a yes-or-no decision on wheth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r globalization, is a good thing or bad thing, exactly as each has unfolded in every detail. Progress [ consists of unbundling the features of a social process ] as much as we can to maximize the human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harms.

- appreciate 이해하다, 인정하다
- industrialization 산업화
- cruelty 잔인한 행위, 잔인함
- alternative 다른, 대체 가능한
- doubtless 의심할 여지없이
- turn a profit 이익을 내다
- humanely 인도적으로
- measurably 눈에 띄게, 측정할 수 있게
- progression 진전, 발전, 향상
- consist in ~에 있다
- indivisible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 unfold 드러나다, 전개되다
- consist of ~으로 이루어지다
- unbundle 개별로 나누다, 개별로 가격을 매기다

■ AYDENOTE

산업화의 장기적인 이익(= benefits)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잔인한 행위(= cruelties)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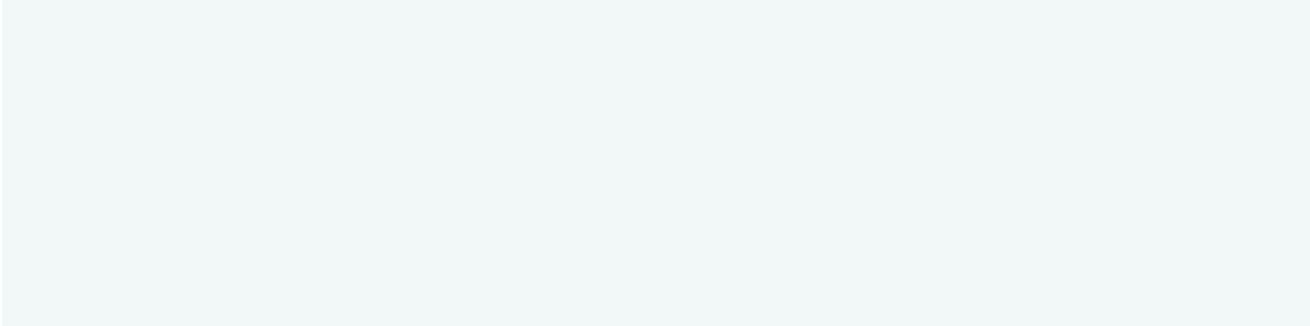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공장들이 이익을 내고 더 인도적으로(= humanely) 근로자들을 대우하며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 혁명기에도 공장들이 더 나은(= better) 근로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될 수도 있었음!



진보(= progress)는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패키지(= indivisible package)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해를 최소화(= minimize)함과 동시에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 maximize)하기 위해 [ 사회적 과정의 특징을 개별로 나누는 것(= unbundling the features of a social process)! ]

산업화의 장기적인 이익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잔인한 행위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현대적 감성이 더 일찍 적용되어 공장이 아이들 없이 그리고 성인을 위한 더 나은 근로 조건들을 갖추고 운영된 산업 혁명의 다른 역사를 상상할 수도 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자신들의 근로자들을 더 인도적으로 대우하면서도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공장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역 협상가들과 소비자 항의로부터의 압력은 많은 곳에서 노동 조건을 눈에 띄게 개선시켜 왔고, 국가들이 더 부유해지고 국제 사회에 더 많이 통합됨에 따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전이다. 진보는 마치 산업 혁명이나 세계화가, 각각이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난 바로 그대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에 관해 '예 또는 아니요' 식의 결정을 해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든 변화를 나눌 수 없는 패키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진보는 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적 과정의 특징을 최대한 개별로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NOTE



056 ☆☆

- 수능완성 4강 4번
- 경제학이 '우울한 학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 경제학자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Carlyle의 반대 입장에 있었기 때문!

Since the 19th century, **economics has borne the dishonorable name of "the dismal science."** Some people think economics is called "the dismal science" because it's **a dry and difficult subject**. Others think it's because economics **tackles depressing topics** such as poverty, crime, war, taxes, inflation, and economic collapse.



The **cheerless nickname** has been attributed by some to the **Scottish historian Thomas Carlyle**, who reportedly **coined the term when discussing economist Thomas Malthus's prediction** that one day population growth would outstrip food production and cause widespread famine.



It's true that Carlyle wrote about Malthus on occasion. But **Carlyle's negative characterization of economics** in fact **appears in an article that he wrote about slavery in the West Indies**, not in any of his writings about Malthus.



[ And, as it turns out, **Carlyle delivered his insult** to economics simply **because the free market economists of his time did not support his proslavery views.** ] So, in the end, **economics earned its less than auspicious nickname for < being on what most would agree was the right side of history >.**

\*dismal 우울한 \*\*auspicious 상서로운

■ AYDENOTE

- 경제학 = 재미없고 어려움 & 우울한 주제들을 다룸(= tackle) = 우울한(= dismal) 학문
- ⇒ 그 **우울한(= cheerless) 별명**은 Thomas Carlyle이 Thomas Malthus의 예측에 대해 논할 때 만든(= coin) 것으로 알려짐
- ⇒ 그러나 사실 경제학에 대한 Carlyle의 **부정적인(= negative) 성격 규정**은 그가 서인도 제도의 노예 제도에 대해 쓴 글에 등장함
- ⇒ [ **Carlyle이 모욕(= insult)한 이유는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그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 ]

19세기 이래로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녀 왔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학이 재미없고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우울한 학문'이라 불린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경제학이 빈곤, 범죄, 전쟁, 세금, 인플레이션, 경제 붕괴와 같은 우울한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 우울한 별명은 스코틀랜드의 역사학자 Thomas Carlyle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여겨져 왔는데,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언젠가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앞질러 만연한 기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경제학자 Thomas Malthus의 예측에 대해 논할 때 그 용어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Carlyle이 이따금 Malthus에 대해 글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Carlyle의 부정적인 성격 규정은 사실 그가 서인도 제도의 노예 제도에 대해 쓴 글에 등장하며, Malthus에 대해 쓴 어떤 글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듯이 Carlyle이 경제학을 모욕한 이유는 그저 그가 살던 시대의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그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경제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의 올바른 쪽이라고 동의하게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서롭지 않은 별명을 얻었던 것이다.

- **출제 예상**  
: [삽입] / ⇩ 순서 / 어휘 / < 빈칸 >

- dishonorable 불명예스러운
- dry 재미없는, 딱딱한
- tackle 다루다
- depressing 우울한
- collapse 붕괴; 붕괴하다
- cheerless 우울한, 재미없는
- be attributed to ~이 만들어 낸 것으로 [~의 작품으로] 여겨지다
- coin (용어를) 만들어 내다
- prediction 예측, 예언
- population 인구
- outstrip 앞지르다
- famine 기근
- on occasion 이따금
- characterization 성격 규정, 특징 짓기
- article 글, 논문
- insult 모욕; 모욕하다
- proslavery 노예 제도 옹호(의)

■ **필/수/이/해 !!!**  
결국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 역사의 올바른(= right) 쪽이라 동의하게 될 곳에 있었기에 > 얻게 됨!  
  
\* Carlyle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였지만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쪽 (=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 있었다는 의미!

NOTE ㄹ

061 ☆☆

■ 출제 예상

: 어휘 / [ 빈칸 ]

- point out ~을 지적하다
- strip 박탈하다, 벗기다
- agency 힘, 작용, 대리(권)
- efficiency 효율성
- messy 다루기 힘든, 더러운
- linear 1차원의, 선형적인, 직선의
- marginalize 하찮은 존재로 만들다, 무시하다
- discrete 별개의, 분리된
- narrow 한정된, 좁은
- assessment 평가
- institutional 제도적인, 기관의
- personal 개인적인

■ 수능완성 12강 3번

■ 학교에 도입된 디지털 도구

: 많은 투자를 했지만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제도적인 교육 도구로 인정받지 못함!

As Larry Cuban, former president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points out, **schools have spent billions of dollars over the years on technologies** that have, in fact, **changed very little of how we think about an “education” in the developed world.** More often than not, we **strip the agency and freedoms that digital tools give to learners and creators outside of school when they bring those same tools into the building.** The system of schooling that most of us are products of is based on a series of **structures and efficiencies that do not work well with the messier, less linear, more self-organized ways we can learn, create, and connect on the Internet.** In fact, the system almost unwittingly **marginalizes digital technologies** in schools. We **relegate them to labs or libraries,** or if we place them in students’ hands, they’re **used only for discrete, narrow purposes** like reading textbooks, creating documents, or taking assessments. **Few would argue** that in schools today, we **see technology primarily as [ an institutional teaching tool, not a personal learning tool ]**.

\*unwittingly 부지불식간에 \*\*relegate (덜 중요한 위치로) 밀쳐 버리다

■ AYDENOTE

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기술에 투자했지만 선진 세계에 대한 생각 방식은 거의 바꾸지 못 함(= **changed very little**)!

↓

디지털 도구가 제공하는 힘과 자유가 박탈(= **strip**)됨

↓

디지털 기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marginalize**) 도서관이나 실험실로 밀어버리며(= **relegate**) 별개의 한정된(= **narrow**) 목적에만 사용됨

↓

[ 기술을 개인적인 학습 도구가 아닌 제도적인 교육 도구 ]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few**) 것

미국교육학회의 전 회장 Larry Cuban이 지적하듯이, 학교는 선진 세계의 ‘교육’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기술에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자주, 우리는 디지털 도구가 학교 밖의 학습자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힘과 자유를 그들이 똑같은 그 도구를 (학교) 건물 내로 가져올 때는 박탈해 버린다. 우리 대부분이 그것의 결과물인 학교 교육 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배우고, 창작하고, 연결할 수 있는 더 다루기 힘들고, 덜 1차원적이고, 더 자기 조직적인 방법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일련의 구조와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실, 그 체제는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을 거의 부지불식간에 하찮은 존재로 만든다. 우리는 그것들을 실험실이나 도서관으로 밀쳐 버리는데, 다시 말해 학생들의 손에 맡기면, 그것들은 교과서 읽기, 문서 만들기, 혹은 평가받기와 같은 별개의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된다. 오늘날의 학교에서 우리는 기술을 개인적인 학습 도구가 아니라 제도적인 교육 도구로 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NOTE